

## 프롤로그

친구의 추천으로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는 담대했던 나의 20대가 담겨있었고,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내가 그때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도 어렵풋하지만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니 말 다 한 셈인 듯싶지만 그래도 기록해 두어야겠다. 우선 기억나서 적어보려고 한다. <1987> 라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당시 우리나라 상황 역시 암울하였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곤 했었다. 나도 학생 신분으로 시위 현장에 참여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시위대열 맨 앞자리로 달려갔더라 있지..... 그때의 상황들은 내 인생 최고 암흑기에 가까웠는데 그 시간동안 세상이치를 조금 알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던지 잘 모르겠다 그저 젊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 밖에 말이다. -그렇게 모진 겨울 바람 속에도 봄기운이 움트듯 젊은이들 사이에선 파릇파릇 새 생명들이 돋아나왔고, 우리에게겐 아직 희망이란 단어가 남아있었으니까. 지금의 청춘인 당신들도 머지않았다고 믿는다. 그 중에 나 또한 있었으니까 그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민주주의 투쟁 전선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하는데도 너무 무리한 나머지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난 후회 없기에 미련 없이 떠나 보낼 수 있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락하고 따뜻하지만 이제 모든 걸 다 벗어내야만 해 “이젠 그러니 자유롭게 날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든다. 내게 더 이상 다른 무엇 하나 필요치 않다. 그래 맞다. 지금의 우린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왜 그래야 했었는지? 어째서 그런 투쟁들이 계속되었어야만 하였는지 지금의 청년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란 어쩌면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동시에 불안정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 군인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여전히 어떠한 감각들로 남아있는 장면들 중 하나가 내 유년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기억들이 나를 지금까지도 지탱하고 이끌어주는구나 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아직 어른이라 할 수 없기에 과거와 현재 사이 괴리감 속 어딘가 울렁임 같기도 한 감정 또한 느껴지곤 한다. 아버지는 군대식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으로서 자식에게 자상한면 보단 엄혹했다. 강한 규율로써 통제된 삶만 강요 해오셨는데, 당시 초등학생인 나와 동생 2명 모두 학교 공부 보충 수업 등 과외 활동이나 자율학습조차 마음대로 받아 주시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주말에도 일 나가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면 화내시기 일쑤였다. 나도 내가 왜 그렇기까지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저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었었고 부모님께 반항할 마음 따위 전혀 먹어본 적 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지도 모른다.... 그 분들께서 원하신 것과 같았을까? 물론 대답하고 싶다 만 그래도 어렵듯이나마 짐작 가긴 한다. 아빠께서 진지 해지셔서 내게 설명할 기회 주려고 했으나 결국엔 포기하게 된 채로 시간 흘러 갔다. 나도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그냥 참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해 보였다. 부모님께 반항심이 생겨

버린 상태였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후회되지 않았나 물으면 그건 또 아니다. 한번은 엄마가 내 방으로 와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너도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울먹거리셨는데 그때 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왜 이런 힘든 기억들이 있어야만 하나 하고 말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 좋게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 없기에, 그래서 그냥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여전히 잊질 못하겠어서 참... 그래,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 공부로 가득 찼던 고등학교 시절

TV에서 '광주에서 날뛰는 빨갱이들을 군인들이 진압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지만, 나와 상관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미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조차 잊고 지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면 그건 내 또래 친구와 그 소식으로 하루 종일 떠돌아야 할 사실일 게 분명한데 그러지 않았으니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공부는... 아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해야 하나?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도서관으로 바로 직행해 복습을 하고, 집 와서 밥 먹으면 하루가 갔는데 이런 날만큼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웃으며 떠드는 일은 적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역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면서 서로 죽이 잘 맞아서 항상 붙어 다녔다는 점이다. 이 녀석이랑만 만나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다른 애가 오히려 비웃었다. "왜 그렇게 오래 사귀냐?"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도 우린 그냥 좋으니까 만났고 또 만났다. 성적은 항상 1등이었고, 반장 부반장까지 도 맡아 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 잘났다고 말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들 또한 누가누가 더 잘난지 경쟁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보였겠구나 싶다. 모의고사를 치면 1등부터 5등까지 한명씩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은 야, 재네 둘 누구야? 그러고, 누군가는 아 애넌 다 똑같애 라고 했다. 수능을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는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그 누구보다 치열한 생활 속에 들어갔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었고, 더더욱 간절했으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하나로 잠은 커녕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해야만 했다. 수능날이 다가오면 학교에 퍼져 있는 학생들 사이에선 긴장감마저 감돌곤 한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나 또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은 흘러가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 앞 대기실에 모여 있거나 근처 카페나 독서실에 몰려들어 휴식을 취하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출발했다. 시험장까지 거리상으론 그다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그런 것 때문인지 수험생 본인과 가족분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와 친구까지 합세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번엔 첫 번째 문제가 어려웠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마저 쉬운 게 없어서 그랬던지 아무튼 다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탓일까, 나보다 더 빨리 풀어진 애한테 많이 뒤쳐진 기분이라 조금 초초해졌지만, 그래도 시험이 끝나고 보니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다. 원하던 대학에 붙었고, 함께 입학했다. 담대한 꿈의 실현이 시작되려는 듯했다.

## 평범한 대학생 청년

첫 20대, 첫 대학교, 첫 동기들 모든 것이 처음이다. 낯선 공기와 함께 시작된 생활의 규칙에서 벗어난 나를 찾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나머지 새로운 관계 속에 적응해야만 했다. 어느덧 시간 흘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 성인으로서 새 출발 선 앞에선 채 우리 나이 이제 겨우 스무 살일 뿐인데 벌써부터 걱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따름이긴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으니 다행인 건가? 그러나 막상 이렇게 되어 보니 사실 잘 모르겠다. 그새 너무 많아진 타인지 혹은 원래 이런 건지 몰라도 설레는 감정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며 한편으로 설레기도 한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기사를 살펴봤지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나의 가치관과 맞는지 고민해본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일 거라 예상한다. 최근 들어 다른 곳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까 궁금해진다.

그런 복잡한 내용은 넘기고 행복한 대학생활에 대해 말해보자. 나의 학창시절 중 가장 기억 남았던 건 역시나 입학식과 신입생 환영회였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입학식이 열리면 선배들부터 후배까지 모두 강당으로 모였고 거기서 사회자인 아나운서의 진행에 따라 자기소개와 성대모사 등 다양한 개인기들이 펼쳐졌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이소룡과 배삼춘 아저씨 흉내였지만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아 애먹었었다는 기억이다.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놀다 보니, 다양한 술게임과 술자리를 통해 서로 친해지고 시끌벅적 해졌다. 하긴 우리들만 있으면 이보다 더 재미있겠는가? 그렇게 즐겁고도 유쾌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었다. 시험공부 하기도 벅찬데 남의 연애사나 걱정할 겨를 따위 없다고 생각하니 웃음밖에 안 나왔다. 그러다가 문득 내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던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웃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날 뿐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나 반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도피만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는 다짐. 그것마저 귀찮아져서 포기해 버리곤 했다... 그래도 이것 또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친구는 달랐다. 그의 이름이 떠오르면 언제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로 차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다고 한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민주주의 의식 정도만이라도 깨우치고 싶어 했다는 애였는데, 그런 의미 없음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함과 순진무구 타인 건지 "민주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으니까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될까?"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

터 고민해왔다면 정치적 입장까지 표출되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이 화난 듯했다. 분명 자신도 어렴풋 알고는 있으면서 행동으로써 표현해야 할 만큼 절실했던 건 아닐까. 그 이후로 난 늘 침묵으로 일관해온 것 같았고, 그에 대해서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꺼려지게 되었다. 나라도 나서서 누군가를 대변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두려운 마음 뿐이었다.

## 아버지의 실직

어느덧 방학이 되었고,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 만난 낯선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바로 아버지의 해고 통지서였으니까. 원래 이런 경우라면 그를 위해 아무 것에도 손 대지 말아야 하는데 나 또한 어쩔 줄 몰랐다. 별다른 대응조치 할 수 없어 잠자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로 끔찍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내 방으로 돌아와 생각하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막막해지며 답답해졌으나 막상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니 어렴풋이나마 떠오르긴 한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어느 정도 생활감이라던가 걱정거리라던지..... 어쩌면 지금까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지만 나 또한 그 당시엔 전혀 몰랐으니까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에도 딱히 별다른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없어 그저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나 하고 적당히 알바 같은데 뛰다가 취직해서 월급 받으며 사는데 그렇게 큰 불만 없이 그냥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였다. 하지만, 사회 현실이란게 워낙 다양하고 또 서로 다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 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의 해고통지서는 내 인생에서 최초로 받았던 커다란 충격이었다. 담대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집으로 돌아오다니, 현실 앞엔 이상적인 상상조차 무력해지곤 했던가 보다. 찝찝한 글자들 사이사이마다 선명히 자국 때문인지 왠지 모를 긴장감 같아 보이지만 공허함이나 불안이 아닌, 알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문장들이 눈 앞에서 펼쳐졌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이유 없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았다. 시위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끔찍한데 말이다. 알고 보니,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항상 엄격하시던 아버지는 시민에게 수류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하여 감옥살이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무력감과 상실감, 좌절로 힘들었으며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세상사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아 가족들 모두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라도 어떻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집 바깥 공기부터 쐬려고 나갔다. 그때 마침 시위 현장 근처 학교 후문 쪽 골목 입구 앞 계단 위 나무 판대기 의자 밑 구석진 자리 옆 작게 마련된 곳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친구가 민주화 운동 관련 유인물들과 대자보 몇 장 들고와서 나눠주었다, 사실 내 또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대

수롭잖았으나 점점 시위 현장에서 마주치거나 총학생회실 같은 데서 자주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관심 갖으면서 유심히 보곤 했으나 나도 모르게 시선회피, 아니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인 즉 손 아버지의 실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기에 두려웠다.... 나에게도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일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었나 보다.

## 친구의 죽음

지금에서야 후회되기도 한다. 아닌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후회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무관심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들도 가물가물 해진다. 중학교때부터 어울리며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는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외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 죽었다. 그 이후로 나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일상생활과 공부에도 흥미를 잃게 되어 무기력증까지 왔기에 내 자신 스스로도 한심함만 느껴졌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졌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란 정말 중요하고 꼭 실현되어야 할 가치인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조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존엄성 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만 복잡 해지는데 정작 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보다 먼저 투쟁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서 탄압받으며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친구의 죽음 직후 나는 결심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뚫뚫 뭉친 사람들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첫 걸음마 내딛는다... 내겐 너무나도 벅찬 일, 그러나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다짐한다. 민주화가 없으면 자유란 사치요 평등이란 허울 뿐인 껍데기에 불과해.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 따위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남들보다 몇 배나 큰 대가들이 기다리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선 벅차 오르기 시작하고 두려움 또한 커져만 갔다. 그러니 무엇이랴도 해야 했다. 그 어떤 저항이라 해도 좋으니 최소한 인간답게 사느냐 죽느냐는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믿었다.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으로 길거리 가득 채워진 모습 보면서 무언가 해보려는 열망 품고서, 다른 사람들처럼 민주주의 투쟁방법도 공부해 보고 시위에도 참가하고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학교 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국선언 등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대자보나 유인물 작성과 같은 교내 언론매체활동으로 부당 함으로부터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싶었기에 용기 내어 총학생회실 문을 두드렸다.

## 담대한 목표 도달에 어려움

아버지가 불복종으로 해임된 것 때문에 어머니는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끊으셨고, 나 역

시 그러했다. 어머니 몰래 대자보와 유인물들은 집 근처 골목마다 뿌렸지만, 예상외에 많은 인파 때문인지 경찰에게 걸리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그런 탓일까? 다른 시위보다 더 격렬했고 그 결과도 실통치 않게 끝났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장마까지 겹쳐, 시위대 사이에서 투덜거림은 물론 짜증마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는 우산으로도 막아낼 수 없어 쏟아지고 또 쏟아졌지만 그들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때마다 물 대포와 최루탄이 쏘아져 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다 결국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끌려 나가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나 자신 또한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음은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풀려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데 길에서 어머니가 날 붙잡아 세우더니 "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라는 물음과 함께 눈물이 맺힌 눈망울에 반쯤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고 대답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먹거리면서 고개만 고덕였다. 그리고 한참 후 다시 물으셨다 또 시위에 나갈 거냐고,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미처 대답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고덕이곤 우물거렸다. 이러한 사건이후 나는 한동안 예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것들 중 가장 듣기에 거북했건 것은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고 결국 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집회참여 및 가두시위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 우리들은 새벽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시위계획과 투쟁의지 등 모든 것이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받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회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아 결국 아침 8시 30분 경부터 2시간가량 노숙생활 후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활동준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희망만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몰래 시위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도중 나는 어머니와 마주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 된 채 내게 소리치셨다 "네 놈은 누구냐! 왜 남들 다 가려는 길 가지 않느냐!" 이 한마디였지만,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에 묵묵히 고개만 숙이곤 할말도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대학교에 도착해보니 교문 앞에서는 시위 중이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있어 학교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이 삼엄했고 운동장과 기숙사까지 봉쇄되어있어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릴 뻔했지만 애써 참았다가 강당 쪽문 앞 계단 위 의자 밑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울지 않으려고 애쓴 것 같다. 이러한 사건 이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이것도 잠시, 내 친구들과 선배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나는 그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대자보 한 장이 붙어오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고야 말았으니...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대담한 도전에 대한 불꽃이 타올랐고,

이 불길속엔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다.

## 친구들이 다침

담대한 목표를 꿈꾸며 함께 나아간 우리.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한 일임은 틀림없다.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총구 앞으로 내밀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아무리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모두 같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른다. 나 역시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내 목숨마저 위태롭지만 지킬 가치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버텨야만 했었으니까.. 이 사건 이후로 많아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억울한가라는 질문 자체에도 모순점 투성이인 건 자명해진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했다” 라고 말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애초에 시국 선언과 대자보가 아닌 순수히 책상 앞으로 모여서 무언가 써내려 갔다면 모를까 그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남아있는가 묻는다면 의문부호가 남는다. 정말 이지 끔찍하고 참혹했지 않은가. 허나 다른 한편으론 그런 것 치고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운동에 참여할 때만 해도 나 자신조차 몰랐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칠 줄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도 방관한 채 침묵해왔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에 차라리 가만히나 살아보자는 심정 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더 이상 방법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러려고 노력하였었는데 막상 닥치니 그럴 용기 자체가 나지 않았다.

그 날도,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평범한 날이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에서 나주까지 5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내려왔다. 총 3번 정도 정차하고 또 1-2 시간 달리면 겨우 도착한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란 걸 가질 수 없는가? 밤 9시 30분쯤 되어서야 조금씩 가로등 불 켜지며 거리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소방차 사이렌 울리더니 시위대 점점 불어나서 경찰버스 들이받으며 막힌다. 뉴스에선 이미 세 번이나 출동 명령 내렸지만 시민들이 안 나가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무력진압 시작했다. 시위대가 폭행당해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 시내로 향하는데 차안 라디오엔 "시위 중 사망한 대학생" 이라는 보도뉴스 들려온다.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있었지만 경찰과 군인이 최루탄과 곤봉으로 막아버린다, 학생회관 앞에선 화염병 투척하고 있어 유혈사태 벌어지기도 한다.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있었지만 경찰이 최루탄과 곤봉으로 막아버린다, 학생회관 앞에선 화염병 투척하고 있어 유혈사태 벌어지기도 한다. 눈 앞에서 영화가 펼쳐진 듯 현실성이 없었다. 다치고 잡혀가는 건 함께하던 우리였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 사람처럼 말했다.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민주주의여 영원히 싸워라!" 라는 외침. 그때 생각한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다.

## 포기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행동 시작합니다.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 우리의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없다. 이대로 물러 설 순 없다!" 오늘 피 흘린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며 숨죽인 외침이 메아리친다. 우리는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우리 대학 선배님이시죠?!"선배의 얼굴엔 당황함 따위 묻어나지 않았는데 이유야 알 수 없었으나 짐작할 수는 있었다. 그 후로 몇몇 학생들께서 연락했고, 나와 친한 분 몇 명 정도와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난 거였으니까 새삼 감사드릴 따름이었다. 명동성당의 추기경과 수녀님들은 모두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만 진행되길 바랬다. 그래서 그 명동성당은 시민집회의 피신처가 되었다. 경찰의 경고사격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했다. 경찰 최루탄 맞아서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시민 모두가 힘 합쳐서 지켜낸 4년의 민주주의 투쟁 끝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직선제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선출 선거까지 이루어 낼 기회마저 얻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반독재투쟁인 5·18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학생 세대에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면 역시 '단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담한 도전뒤에 따라온 빛

민주화를 되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지나간 것들을 보았다. 그것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 군상까지... 이 모든 광경 중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거나 불타오르고 있는 학생과 시민 단체였다.

빼앗긴 민주화를 되찾은 모습을 보기위해 함께 싸웠던 많은 내 동료들이 시청 앞에 모였다. 나의 선배들도 이 소식만으로 가득했고, 그 어느때보다 흥분된 마음과 기대감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당시 나와 같았던 학생 대부분에겐 꿈같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 자체 만으로서 말이다. "민주"라는 단어 하나 건졌다는 사실조차 감격스러웠다. 직선제개헌 요구에 대한 승인과 같은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권도 얻었다. 간절히 희망해온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나의 눈과 마음도 함께 뜨인다.

많은 동료들이 다치고 잡혀갔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 또한 꺾이지 않았다. 투쟁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있다는 사실일 테니까,



나에게는 희망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곤 했는데 막상 생각나지도 잊히지도 않아버린 지금 다시 한번 더 마음 깊이 새기려 한다. "민주화가 완성될 그날까지" 라는 문구 하나로만 봐도 쉽고도 어려운 단어 '투쟁' 그러나 그것만큼 담대한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젊음과 열정,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을 되새기며 이 글도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마저 안된다면 내 존재 자체조차 부정당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아직 그 날들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건 오히려 당연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래도 꽤나 뿌듯한 일인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삶 속에서 희생된 사람 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희망 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 분명 앞으론 살면서 좋은 나쁜든 간에 계속적으로 마주칠 사건 사고와 더불어 여러 위기도 함께 닥쳐올 텐데 그때마다 이겨낼 힘 또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고 의연한 정신을 가지며 버티기 위해선,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신 스스로가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기에 더 없이 소중한 가치이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지만 민주화를 포기할 순 없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자유와 평화, 인권과 권리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그거 별거 아냐" 라고 말한 선배들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실현된 모든 정치적 변화의 근간은 바로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 민주화 운동 그 후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옛날의 엄격하던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게 보여주신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 역시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며 이어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바뀐 사회 속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워 해야만 했던가.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뒤로 물러나 숨죽여야 하나 나 자신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가? 과연 내가 옳다고 믿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등 수많은 것들만 결국 아무 것에도 확신 할 수 없어 불안함뿐인 상황에서 누군가 내게 물으면 난 그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지 않은가.

원망스러웠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과 고함소리가 생생히 떠오른다. 어렸지만, 아직도 가끔씩 기억이 난다 그때 난 너무 어리기도 했거나 와 부모님께 맞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크게 반항한 적 없었다 항상 분개하였었으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였었나 보다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과 결정만 반복적으로 해 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가족 간에도 서로가 몰랐지만 소통할 수

없어 오해와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나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한 감정들이 생겼음도 알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잘못이라 여겨 사과드리며 화해 아닌 용서로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야 했다. 지금처럼 당신의 아들이 총대 메기는 커녕 시위 한번 제대로 나서지 않았어도 아마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잊어서 안 된다. 그것 하나다 대한민국 사회 대부분 청년들이 독재 타도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리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신보다 더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 하에 기꺼이 독재정권과 싸웠으며 끝내 승리해냈던 점 말이다.

나는 아직까지 그날의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엄마가 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며 우셨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한참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숨 넘어 가듯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었다는 것. 그렇게 서럽게 운 적 처음이라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 나의 투쟁이 없었다면 현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서 뿌듯함과 동시에 죄책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또다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싸울 뿐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서 아직까지 이어지며 발전해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 투쟁이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엔 끝끝내 승리로 이끌어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다. 나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 남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5월 18일, 그날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우산 하나 없이 다니며 곳곳마다 군인들이 총검으로 무장한 채 서있었다 빗속이라 더욱더 공포감과 두려움만 가득 안고서. 친구의 학생 운동 권유를 일찌감치 들었으면 좋았을까? 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나에겐 아직 젊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걸 그랬나 하며 스스로 자책해왔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후회스럽기만 한데, 왜 진작 용기 내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적어본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한 건 분명 사실이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 살아간다.